

2017년 10월 18일, 한경면 낙천리 저거홀못 정자, 이효순 조사.
조성동(남, 1940년생, 한경면 낙천리)

- 줄거리: 옛날 머슴이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다 되어 주인은 그에게 샅을 줘야 했다. 주인은 보상을 돈이 아닌 쌀만 조금 주고 보내 버리고 싶었다. 그래서 머슴에게 “쌀을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. 네 힘으로 한 번에 정낭 밖까지 가져가는 것은 다 네 소유다.” 하고 말했다.
그런데 머슴은 워낙 힘이 센 사내라서 기본으로 등에 쌀 여섯 가마니를 지고, 양손에 두 가마니씩 모두 쌀 열 가마니를 지고 들었다. 그래도 욕심이 생겨서 또 쌀 두 가마니를 이로 물어서 간신히 정낭 밖까지 넘어갔다고 한다.

[제보자] 나도 들은 말인디, 옛날, 놈이 집 쉼 댁이네 장남. 기운 센 놈이 집 사는 장남이 잇었는디, 그 요새 정년퇴직 기간이 다 뉘난 집을 나가켄 허난, 주인이 그러며는 나가는 건 좋은디 보상을 헤사 될 거 아니우파? 월급을.

[조사자] 맞추마씨게. 예.

[제보자] 월급을 그때

“쌀로 느 가져가고 싶은 만이 가져가라.”

우리 정낭. 정낭이렌 현 건 경계선.

“정낭 바깥디?지만 혼번에 가져가든 너 소유다.”

게난 그 장남은 힘이 원체 좋아노난. 우선 등에 지는 건 기본. 기본을 요섯 가멩 일 져어양. 딱 기영 기본으로 지고. 이쪽에 두 겔 들려서양. 이쪽에 두 개. 게난.

[조사자] 요섯에 요덥 가마?

[제보자] 아니, 열 개주기. 요섯은 등에 지고. 둘에 또 둘 허난 열 가멩이허고. 게난 그 장면을. 게난 돈 열두 가멩이를 지언. ‘올레 정낭 바깥디?지만 지영 나가든 너 소유다’ 허난 그걸 지언 나갓덴. 그것도 족아 베연 니로 또 두 개 물었어예.

[조사자] 나가긴 나간마씨?

[제보자] 나가난. 게난 열두 가멩이 모다 지언 나간. 이건 우리 묵을이 아니고 어디 동네 기운 센 장남.

- 핵심어: 장남(머슴), 정낭, 주인, 욕심, 힘, 쌀, 가멩이(가마)